



내일개발과정시리즈

301(하) 성령부흥

# 내일개발과정 301(하) 성장반



내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42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212  
TEL.(053) 587-2121 FAX.(053)587-2124 <http://naeil.kr>





## 내일개발과정

# 301

## 성장반

### IV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

12과 교회란 무엇인가?	4
13과 교회 생활의 원리: 사랑과 섬김, 그리고 순종	9
14과 교회 생활의 실제: 용서와 용납	14
15과 은사로 교회 세우기: 하나됨과 다양성	18

### V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

---

16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그 사명	24
17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경영 원리: 사랑과 정의	28
18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경영 방법: 노동	32

### VI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

19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38
20과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믿음과 훈련	42
21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청사진	45
22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	48

## IV부

#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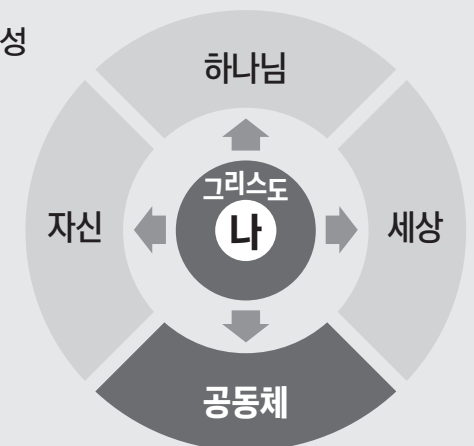
나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나 혼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동일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한 작품이며, 이는 달리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12과 교회란 무엇인가?

13과 교회 생활의 원리: 사랑과 섬김, 그리고 순종

14과 교회 생활의 실제: 용서와 용납

15과 은사로 교회 세우기: 하나됨과 다양성



# 12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데서 병든 신앙생활이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더욱 더 충성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들어가며

구약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과 신약의 교회, 현대의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 1.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1) 고린도전서 1장 2절:
- 2) 에베소서 1장 23절:
- 3)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며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총만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 2.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 1) .....  
(출 19:5~6; 레 26:12; 신 7:6; 신 28:9~10; 렘 31:31~33; 렘 2:9~10)
- 2) .....  
(롬 6:3, 5; 12:4~5; 고전 10:17; 12:18~26; 엡 1:21~23; 5:23; 골 1:18; 2:19; 계 17:14)
- 3) 교회와 성전의 차이점과 공통분모를 설명하면서...  
.....  
(고전 3:16; 6:19~20; 엡 2:21~22; 벧전 2:5)

### 3. 참된 교회의 5가지 사명은 무엇인가요?

- 1) 언약공동체 - 예배(Worship)
  - 출애굽기 3장 11~12절:
  - 출애굽기 5장 1절:
  -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 요한복음 4장 23~24절:
- 2) 신앙공동체 - 신앙교육과 경건의 훈련(Discipline)
  - 신명기 11장 18~21절:
  - 마태복음 28장 19~20절:
  - 디모데전서 4장 7절:
  - 디모데전서 6장 3~5, 11~12절:
  - 디모데후서 3장 14~17절:

3) 교제공동체 - 사귄/교제(Communion)

- 고린도전서 12장 18~27절:
- 에베소서 4장 1~3절:

4) 봉사공동체(은사공동체) - 섬김/봉사(Service)

- 로마서 12장 6~8절:
- 고린도전서 12장 4~7, 8~11절:
- 에베소서 4장 11~12절:

5) 선교공동체 - 전도/선교(Witness)

- 창세기 12장 2~3절:
- 이사야 42장 1~12절:
- 마태복음 28장 19~20절:
- 마가복음 16장 15절:

4.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Marks)는 무엇인가요?

1) 교회의 단일성(the One Church - Credo unam ecclesiam)

- 요한복음 17장 21~23절:
- 갈라디아서 3장 28절:
- 고린도전서 12장 12~13절:
- 에베소서 4장 1~6절:

2) 교회의 거룩성(the Holy Church - Credo sanctam ecclesiam)

- 레위기 20장 26절:

- 에베소서 5장 26~27절:

- 디모데전서 6장 11~12절:

- 베드로전서 2장 9절:

3) 교회의 보편성(the Catholic Church - Credo catholicam ecclesiam)

- 골로새서 1장 16~20절:

- 골로새서 3장 11절:

- 요한계시록 7장 9~10절:

4) 교회의 사도성(the Apostolic Church - Credo apostolicam ecclesiam)

- 에베소서 2장 20절:

- 마태복음 28장 19~20절:

- 요한계시록 21장 14절:

5. 참된 교회의 4가지 속성은 무엇인가?

1) 말씀의 참된 선포

- 마태복음 28장 19~20절:

- 요한복음 3장 31~32, 47절:

- 디모데후서 3장 14~4장 2절:

- 요한2서 1장 9~11절:

2) 성례의 올바른 시행

- 고린도전서 11장 23~30:

말씀의 참된 선포는 성례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성례는 말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 3) 권징의 신실한 시행

- 마태복음 18장 15~17절:

- 갈라디아서 6장 1절:

- 디모데전서 5장 20절:

## 나눔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맞는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숙과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13과 교회 생활의 원리: 사랑과 섬김, 그리고 순종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의 조직 운영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는 피라미드 조직과 같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쪽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지위에 눌러 굴복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정보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정점에 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 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경하고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 들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권위만 앞세우는 지도자 혹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비협조적인 팀원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점이 힘들게 했나요?

### 1.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요일 3:14~16)

### 2.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2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 사랑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19절)

2)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20~21절)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증표는 형제 사랑입니다.

### 3. 요한일서 3장 16~19, 23~24절은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를 잘 설명해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1) ..... 사랑(16절) 희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2) ..... 사랑(18절) 진실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 3) ..... 사랑(17~18절) 말로만 하는 사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 4) ..... 사랑(23~24절) 우리의 형제 사랑은 누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실제적인 복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는 투명한 사랑입니다. 다른 숨은 동기가 있거나, 꾸미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염두에 둔 진실한 사랑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넷째,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 4.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 1) 사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탁월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1~3절)
  -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 예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 구제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 2) 사랑의 본질 열다섯 가지를 열거해 보십시오.(4~7절)

이상의 열다섯 가지 사랑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열다섯 가지 사랑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오래 견디고 참는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이 동하든 그렇지 않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태에 매이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롬 12:20).

3)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게 될까요? 어째서 사랑은 영원할까요? (13절)

**5.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까?(마 20:25~28)**

1) 세상 사람들의 조직 운영 방식은 어떠합니까?(25절)

2)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운영 방식은 어떠합니까?(26~28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계산과 개인의 취향, 자신의 방식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해관계로 묶인 세상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리더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벧전 5:5)**

우리는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영적 리더의 말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칠 때에는 겸손히 질문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극단은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민주적일지 모르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셨고, 이들에게 그에 걸맞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교회의 의사 결정 등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영적 리더들의 권면에 귀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엡 5:21)**

1) “피차 복종”(서로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21b절)

2) 우리는 어떻게 서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21a절)

**나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14과 교회 생활의 실제 : 용서와 용납

우리는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리더들은 주님께 더 많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마디로 '피차 복종'(서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엡 5:21).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 들어가며

어떤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1. 용서(Forgiveness)와 용납(Tolerant)의 정의해보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 하나요?

1) 용서 :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관계에서 표현된다.

- 창세기 18장 24절; 로마서 3장 25절:

- 시편 86편 5절; 누가복음 7장 42절; 요한복음 3장 16절:

- 골로새서 1장 14절; 히브리서 9장 22절:

-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참고  
영국의 철학자 조안나 노스(Joanna North)는 용서에 관해서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이다. 그는 용서란 “부당하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 복수하고 싶어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심정에서 복수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열정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제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분노를 극복하려 한다면 용서가 가능하다. 이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가해자들이 필히 그러한 선물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스 박사의 정의는 용서는 고통과 함께 시작되고 우리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겪은 가해행위는 부당하고 항당 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분노감에 대한 도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존경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용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우리의 분노감, 복수심을 포기해야 한다.

2) 용납 :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신명기 18장 11절; 시편 101편 5절:

-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에베소서 4장 2절; 히브리서 5장 2절:

- 히브리서 13장 22절:

참고  
『진정한 사람되기』에서 칼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공감의 관점에서 용납을 정의했다. 내게 있어 용납이란 상대의 조건, 행동, 감정과 상관없이 그를 무조건적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따뜻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를 개별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며, 그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상대의 기분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리고 현재의 행동이 과거의 태도와 얼마나 상충되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상대의 태도를 수용하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상대의 변덕스러운 면을 용납함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따뜻하고 안정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도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 2.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요 13:34~35)

1)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께서 범위가 제한된 소수의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3. 우리에게 주신 몇몇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35절에서 말씀해줍니다.**

1)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참고. 엡 4:32)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삷이므로, 만 달란트는 15만년의 품삷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삷이므로, 백 데나리온은 100일 품삷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15만 년어치 월급, 즉 절대로 갚지 못할 빚을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백 데나리온 정도 되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4. 교회 생활에는 용서와 함께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골 3:13)**

용서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탕감해주는 것,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없애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납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사실에 기초하여 가능합니다.

**나눔**

용서와 용납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버릴까요? 용서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지 나누어보십시오.

## 15과 은사로 교회 세우기 : 하나됨과 다양성

성경은 교회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양한 지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손, 발, 몸통 등 다양한 신체 부위가 각자의 모양과 쓰임새를 갖는 것처럼, 한 몸이 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 들어가며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시다(고전 12:3~13).

- 1) 교회 하나됨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3절)
- 2) 하나된 교회에 어떤 다양성이 있습니까?(4~6, 8~10절, 참고. 롬 12:4~8)
- 3)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선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7절, 참고. 고전 14:12, 26; 엡 4:11~12)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 재능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나 훈련, 경험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개발되기도 합니다(예: 가르침, 지식의 은사 등). 또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주어지기도 합니다(예: 방언, 병 고침 등).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참고. 벰전 4:10).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재능과 성령의 은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능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각대로 사용할 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받은 은사를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은사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은사와 신앙 성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고전 12~14장)

- 1) 은사를 구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1절, 참고. 고전 12:31, 14:12)
- 2)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고전 6:9~11, 11:22, 13:22)
- 3) 은사에 대해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 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고, 은사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랑을 가장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 성숙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랑의 동기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더 잘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3. 로마서 12장 3~8절은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 1)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4, 6~8절, 참고. 고전 12:8~11, 28)
- 2)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3절, 참고. 고전 12:15~19, 21, 26)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한 몸이지만, 각자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만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 교회는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으로 섬기는 일은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반대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 나눔

내가 가진 은사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신약성경에 나타난 은사표

롬 12:4~8	7가지	예언 / 섬기는 일 / 가르치는 일 / 권면하는 일 / 구제하는 일 / 지도하는 일 / 긍휼을 베푸는 일
고전 12:6~10	9가지	지혜의 말씀 / 지식의 말씀 / 믿음의 은사 / 치유의 은사 / 능력 행함의 은사 / 예언의 은사 / 영들 분별함의 은사 / 여러 가지 방언 말함의 은사 / 방언 통역의 은사
엡 4:8~12	5가지	사도 / 예언자 / 복음전도자 / 목사 / 교사
벧전 4:10~11	1가지	봉사 또는 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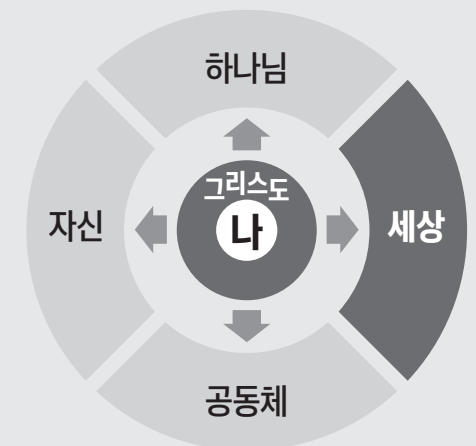
# V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익힌 다음, 실제로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곳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일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6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그 사명

17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경영 원리 : 사랑과 정의

18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경영 방법 : 노동



## 16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그 사명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신분이 바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 들어가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니라 직장, 학교, 가정에서 보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봅시다.**

1)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동시에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엡 2:19)

2) ‘시민’은 어떤 존재이고, 그 의무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2.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요 15:19)

2)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빌 3:20~21)

3)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딤후 2:12; 롬 8:18)

**3.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에베소서 2장 6~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 베드로전서 1장 14~16절; 베드로후서 1장 3~4절:

**4.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벧전 3:14~16)**

1)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14b~15a절, 참고. 사 8:12~13)

2)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흘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15b절)

5.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 삶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벧전 3:15~16a)

- 1)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15b절)
- 2)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까?(15b~16a절)
- 3) 간증과 전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 선한 양심으로 간증과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믿는 도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 설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4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과 당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둘째,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셋째,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넷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 들어서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6. 말로 하는 전도가 효과적이려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 1) 마태복음 5장 13~14절:
- 2) 빌립보서 2장 14~16절:
- 3) 요한복음 13장 34~35절:

7.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맹인은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증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요한복음 4장 28~29절:
- 2) 요한복음 9장 25절:

**나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난 이후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각각 3명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 17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경영 원리 :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조화로움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렇듯, 사랑과 정의가 늘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을 퇴보시키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일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당신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1.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原) 계획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1) 창세기 1장 27~28절:

2) 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차질을 빚었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창 3:4~6, 17)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그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인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창 3:4~6, 17). 이렇게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난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한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세상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래서 훼손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려간다는 뜻입니다.

## 2.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 다스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시 85:10, 89:14)

2)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라"는 성경의 명령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권탄압, 인권유린, 독재, 비인격적 리더십 스타일 등이 부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다스림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품으셨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 3. 다음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 1) 사랑

- 출 34:6; 은 4:10,11; 마 5:44-45; 벰후 3:9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나요?
-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 인가요?
-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나요?

#### 2) 정의<sup>1)</sup>

- 구약에서 정의(מִצְדִּיק, 正義, 쩌다카, righteousness)와 공의(צְדָקָה, 公義, 미쉬파트, justice)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쩌다카: 창 15:6; 시 5:9; 9:9; 11:7; 31:2; 36:7; 40:11; 51:16; 69:28; 71:2; 119:40; 사 59:9; 렘 33:15; 미 7:9 / 미쉬파트: 창 18:25; 욥 8:3; 시 9:8; 72:1~2; 암 5:15, 24; 미 3:1; 합 1:4[규례, 재판, 공의, 의, 판단력 등으로 한글성경은 번역하였습니다])
- 신약에서의 정의나 의(δικαιοσύνη, 義, righteousness)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하나님의 의[義]로운 통치: 행 17:31; 벰후 1:1; 계 19:11. 참조. 약 5:1~4)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설사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옳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1) 참조. 기독교일보 2017년 7월 15일 article “의, 공의, 정의”의 원어와 그 개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과 악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세상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며, 연습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 나눔

다음의 영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오.

- 1) 내가 주로 하는 일
- 2) 내가 속한 공동체(직장, 지역)
- 3) 우리 사회(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 4) 우리 사회의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
- 5)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 생태계
- 6)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 7) 전(全)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

# 18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경영 방법 : 노동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리가 사랑과 정의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정의라는 원리를 따라 세상을 경영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합니다. 일(노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찾고, 자신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알아,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 들어가며

헬라어로 노동은 포노스(πόνος, labour)로 의미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시민)은 스포츠를 즐기고 국가 수위를 위한 전쟁을 나갈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노예들의 삶이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들의 노동은 슬픔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노동(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창 1:27~28, 참고. 창 2:19)

2) 시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할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까?(시 104:19~23)

3)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일(노동)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일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합니까?(참고. 요 5:17; 살후 3:10)

성경은 인간이 일(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창 2:1~3절까지 일곱째 날 안식을 명령하는 장면을 보면, 6일 동안 분명 노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간은 '일(노동)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시는 분'으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일에 대해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한 마디로,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 2. 타락 후에 인간의 일(노동)은 어떠한 부정적 측면을 갖게 되었습니까?(창 3:17~19)

1) 반드시 .....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2) 일(노동)에 지나친 .....과 .....가 따르게 되었다.

3) 일(노동)한 만큼의 .....가 따르지 않게 되었다.

참고  
그리스 철학자가 가진 이원론(Dualism)은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중세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은 노동을 저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여 성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이류 그리스도인이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노동은 기도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도원 안에서의 노동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속세에 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3. 타락 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노동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1) 출애굽기 20장 9절:

2) 누가복음 10장 7절:

3)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4)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예수님은 땅위에서는 목수였고, 사도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으며, 바울사도는 선교사역중에서도 계속해서 육체노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정보는 분명 돈이 목적이 되면 잘못이 되는 것이지만 노동하고 일한 대가가 분명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4. 하나님께는 우리의 일(노동)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를 수 있습니까?

1)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빌 2:13)

2)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롬 12:1~2)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매일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5.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골 3:22~23)

2) 이렇게 일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마 5:16; 고전 10:31)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숨씨,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 나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

## Ⅵ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 지향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19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과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 믿음과 훈련

21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청사진

22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



## 19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은 책, 영화, 사건, 사람 등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일에 있어 가장 존귀하고 믿을 만하고 중요한 원천은 단연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들어가며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사람, 책, 사건 등)은 무엇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마 5:48; 롬 8:29; 엡 5:1; 골 3:10)

2.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1) 예수님도 성장의 \_\_\_\_\_ 을 거치셨다.

2)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영역에서 \_\_\_\_\_ 있게 성장하셨다.

(정신적·육체적 영역, 영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성장에 대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종종 우리들은 성장에 긴 기간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말 그대로 한 번에 불을 받아 갑자기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짧은 기간에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는 일은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장이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신적·육체적 영역, 영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의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3. 에베소서 4장 12~15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와 내용,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1) 성장 목표(13b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2) 성장 내용(12, 13a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3) 성장 방법(11, 13a절) “우리가 ...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4) 성장의 필연성(14절)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새번역)이르는 것입니다. 야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듯이,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는 것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성장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속에서 함께 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 없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 4. 골로새서 1장 6절, 2장 6~7절을 읽어 보십시오.

- 1)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골 1:6, 2:6)
- 2)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 뿌리를 박음:
  - 세움을 입음:
  - 굳게 섬:
  - 감사의 충만:

#### 5.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시 42:1~2)

#### 6.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요일 3:2~3)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곧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뵈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다를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더욱 더 깨끗하게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 나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성장을 위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영역이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과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 믿음과 훈련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오해하여 영적 체험, 자기 훈련, 종교 행사 같은 종교적 영역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난 후에는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습관과 천성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성도는 성장합니다.

### 들어가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장에 이를 수 있습니까?

#### 1.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알아보자

- 1) 9~10 절의 말씀 중에 '네가' 를 '내가' 로 고쳐 다시 한 번 적어 보라.
- 2)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 3) 참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9~10절, 참고. 잠언 23:26)
- 4)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를 설명해보라.(17절)
- 5) 이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고전 2:2)
- 6)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한가?(고전 2:5)

#### 2. 믿음은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 1) 에베소서 3장 12절:
- 2) 로마서 15장 13절:

#### 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 1) ..... (롬 3:24~25)
- 2) ..... (롬 5:1~2)
- 3) ..... (롬 1:17; 고후 5:7)

#### 4. 믿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엡 2:8~9; 살전 1:3; 약 2:17)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 믿음(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수용) → 행함(우리가 믿는 내용이 삶에 나타남) → 변화(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

### 5.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빌 4:9; 딤후 4:7)

참고 “성숙한 믿음을 위한 훈련지침”

1.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한다(롬 10:17).
2.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눅 22:32; 딤후 4:5).
3.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요 3:36; 롬 10:16; 히 11:8, 31).
4. 믿음의 교제를 잘 해야 한다(히 3:13; 엡 4:4; 잠 27:17).
5. 회개 생활을 잊어서는 안된다(롬 6:16; 딤후 3:6).
6.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엡 4:26~27; 고후 2:10~11; 히 12:15).
7.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롬 8:6~7; 요일 2:16; 약 4:4).
8. 세상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마 6:31~33; 벘전 5:7).
9.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롬 12:2; 요일 2:15~17)

### 나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믿음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는 대로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에 훈련 지침 가운데 지금 내가 하지 않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방향으로 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습관’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일상의 모습’입니다. ‘영적습관의 훈련’이 없으면 변화는 없습니다(출처: <https://dreamingpastor.pe.kr/5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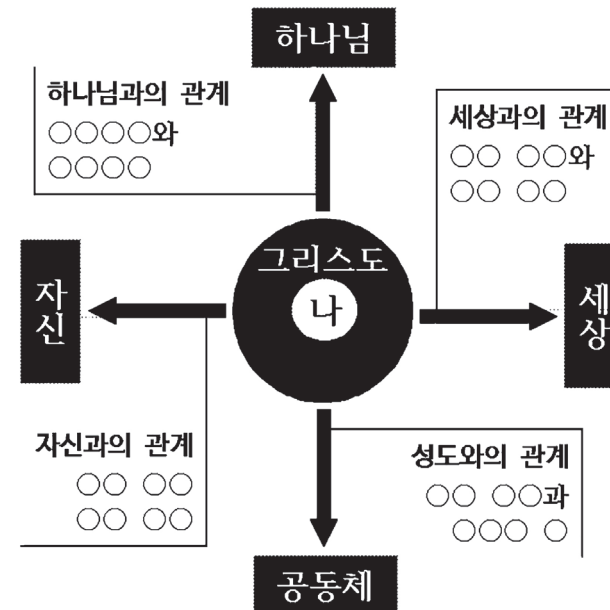
## 21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청사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 하나만 먹어서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적절한 비율로 섭취할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운동과 쉬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양한 영적영역을 균형 있게 모두 아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역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선명한 청사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들어가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다루어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림과 표를 통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단어를 완성해보세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 (자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세상)

⇓ ⇓ ⇓ ⇓

하나님과의 관계	알아가기	성경
	사랑하기	예배, 순종, 기도
자신과의 관계	자기 부인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근심·소멸케 함
공동체와의 관계	형제 사랑	희생하는·진실한·구체적인·중심이 있는 사랑
	섬김의 도	피차 복종의 원리
세상과의 관계	복음 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알림
	세상 경영	사랑과 정의, 노동의 의미

**설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은 하나님, 자신,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구체적인 4가지 관계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알아가기'와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성령이 근심하시며 소멸하기까지 하심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의 4가지 원리는 '희생하는 사랑·진실한 사랑·구체적인 사랑·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섬김의 도에서는 피차 복종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경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동의 의미를 기억하며 세상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은 교회 속에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1) 성장 목표(엡 4:13)
- 2) 성장 모습(벧전 1:22)
- 3) 지도자(멘토)의 모습과 역할(고전 11:1)

**3. 주님을 본받아가는 교회와 개인이 궁극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엡 2:7: 딤후 2:2)**

균형 있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먼저 따라간 사람들, 즉 영적 지도자들과 멘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을 좇아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통해 다음 세대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나에게서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까?

# 22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예언의 마지막 성취이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어지며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홀연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던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영광이 주어지며,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환난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 들어가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인식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 1.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에 대해 교훈하신 것으로 소개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1)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 4~5절, 23~24절:

- 6~8절:

- 14절:

- 32절:

2)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37~41절)

3)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36절, 참고: 42, 44, 50절)

4) 재림의 일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48~51절)

5)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형편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세요.(38~39절)

6)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근거해서 진술해보세요.

### 2.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1) 사도행전 1장 11절:

2) 마태복음 16장 27절:

3)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 3.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순서로 일으킴을 얻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까?(16절)

2) 성도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13, 18절)

4.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 1) 마귀와 그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계 19:20, 20:10)
- 2) 최후 심판인 백보좌 심판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계 20:12-13)
- 3) 지옥은 어떤 곳으로 불려지며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에 어떤 사람들이 던져질까?(계 20:15, 21:8)

5.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1) 성도들은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벧후 3:12-13; 계 21:1)
- 2)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계 21:4)
- 3)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미래의 성도 공동체를 뜻합니다. 재림의 때에 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계 21:2, 21:9-22:5)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성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9절~22장 5절에서 상징적으로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21장 9~1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성의 거룩한 외형이, 18~21절에서는 그 성을 장식한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22~27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특권과 생활을 소개하고 있고 22장 1~5절에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1) 1~13절 (열처녀 비유)
- 2) 14~30절 (달란트 비유)
- 3) 31~46절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체될 지 모르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성령 충만, 경건의 훈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3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은사를 주셨습니다(1달란트=6천 데나리온=6천x노동자 하루 품삯, 대략 3억).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파묻어 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양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7.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1) 고린도전서 15장 58절:
- 2) 요한일서 3장 2~3절:

나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해 보시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